

癌性痛症의 韓方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鄭澈淙 · 林樂哲 · 趙鐘寬*

I. 緒論

疼痛은 생체에 대한 유해자극을 防禦할 목적으로 아픔을 느끼는 증후로서 組織이 손상되었거나 통증자극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생되며, 질병의 다수가 통증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¹⁾.

癌性痛症은 末期 癌환자에 나타나는 症狀으로 腫瘍이 周圍組織을 壓迫하거나 有關 組織의 神經 및 正常組織을 侵犯함으로 발생하는데 임상증상은 癌病巢에 따라 다르며, 痛症의 양상은 病巢가 커짐에 따라 繼續되고 極烈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耐受性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2,3,4)}

癌性痛症은 《內經》에서는 積, 癰, 石, 瘕, 乳岩, 石疽, 噎膈, 反胃, 臆毒, 舌菌, 蠶脣 等⁵⁾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內經》⁶⁾에서는 “大骨枯槁, 大肉陷下, 胸中氣滿, 喘息不便, 內痛引肩項”이라 하여 肺癌의 末期 疼痛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고, 漢代에 와서 張仲經은 《傷寒雜病論》⁷⁾에서 “在下未多, 經候不均, 會陰掣痛, 少腹惡寒, 或引腰脊, 下根氣街, 氣沖急痛, 膝脛疼痛,..... 久則羸瘦”라 하여 子宮癌으로 인한 통증에 대

하여 기록하였으며, 明代의 陳實功⁸⁾은 “經絡痞澁, 聚結成核, 初如豆大, 漸如棋子, 半年侏年, 二載三載, 不痛不痒, 漸漸而大, 始生疼痛, 痛則無解”라고 하여 癌性痛症은 病的 後期에 발생되고 그 痛症은 완화시키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清代 《醫宗金鑑》⁹⁾에서는 喉頭癌에 대하여 “初.....微痛, 日久.....腫痛日增, 破爛腐衣, 疊若蝦皮, 聲音嘶啞, 喘急多痰, 臭腐蝕延, 其痛倍增, 妨碍飲食, 胃氣由此漸衰, 而虛火益盛,其證投方, 病或者十全一二, 否則難救”라 하여 癌性痛症이 持續적으로 加重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舌癌에 대하여는 “其症最惡, 初如豆, 次如菌, 頭大蒂小名曰舌菌, 疼痛紅爛無皮..... 久之延及項頷, 腫如結核, 堅硬而痛 日久漸剝, 百不一生” 이라고 하여 날이 갈수록 虛衰해 지면서 豫候가 不良하다고 하였다.

本症은 韓醫學에서는 “痛症”의 範疇에 속하는데 대부분 正氣가 虛한 상태에서 邪毒이 內蘊하여 氣滯血瘀함으로 氣血이 不通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¹⁾ 王清任¹⁰⁾은 腹內積聚疼痛을 治療하는데 血瘀說를 主張하여 膈下逐瘀湯, 少腹逐瘀湯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西洋醫學에 있어서 癌性痛症에 대한 治療方

* 大田大學校 韓醫科 大學

※ 본 논문은 1995년 9월 7일 대한한의학회에 제출된 논문임.

法으로는 局部治療, 鎮痛劑 및 疼痛의 傳達路를 遮斷하는 方法들이 있으나, 惡心 嘔吐를 비롯하여 骨髓抑制效果와 肝 心 腎 肺의 손상을 초래하고, 특히 암세포의 藥劑抵抗性 出現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2,3)}.

이에 著者는 人體에 無害하면서도 效果적인 癌性 痛症에 대하여 韓方治療法을 강구해 보고자 數種의 韓方書籍 및 최근 발표된 資料를 통하여 考察해 본 바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 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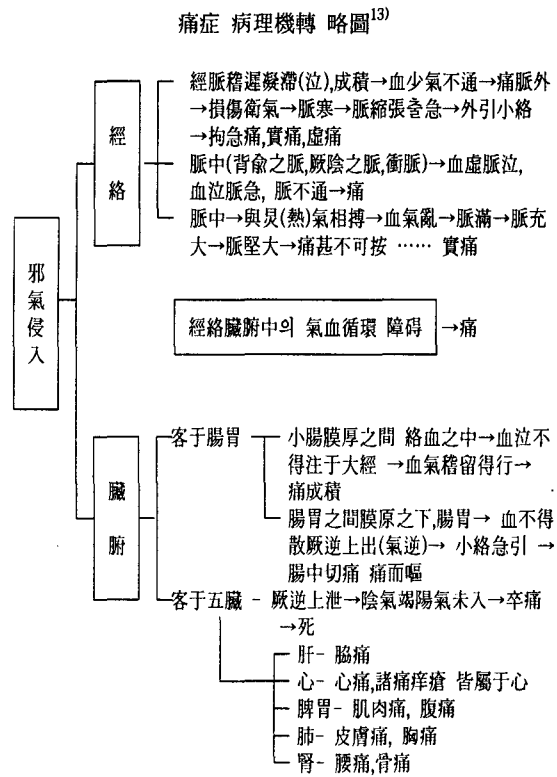
II. 本 論

1. 痛症의 一般 原因說

病因의 分類	痛症 病因說
痛症과 六淫의 關係 ⁶⁾	1) 寒→痛 · 內經學痛論中 14條 - 寒 · 痺論 - 痛者 寒氣多 · 寒痺, 寒氣勝, 感於寒, 厥氣 · - 寒 → “病因十中八九寒 十中一二熱” 2) 熱→痛 · 陰陽應象大論 - 熱傷氣 氣傷痛 · 學痛論 - 熱氣留于小腸 (楊元知: 寒邪稽留不去得陽熱之氣而能化熱) · 上盛 熱病 · 諸痛瘡 皆屬于心火 3) 風 - 寒中所生, 風寒同源 → 痛 → 風痺, 風懿 4) 濕+寒 或 風寒 → 寒濕 風寒濕 5) 燥(歲金太過 木鬱之發) → 影響肺金 腦腹痛
痛症과 七情	1) 學痛論中 ⁶⁾ 九氣 2) 張從政 ¹⁰⁾ - 九氣不同 - 諸痛皆因於氣 3) 錢 乙 ⁸⁾ - 七情 → 氣痛
痛症과 津液流通	1) 周痺論 ⁶⁾ - 涎沫(得寒) → 聚集 → 痛 2) 朱震亨 ¹⁰⁾ - 痛多主於痰 痛甚者火多 3) 李梴 ⁶⁾ - 痰乃津血所生內外感傷 → 氣鬱 → 濕鬱 → 熱鬱 → 痰鬱 → 血不行 → 痛
痛症과 瘀血	1) 血流不暢 或局部有血液停滯 而成血瘀 - 由于瘀血阻塞 經脈不通則痛 2) 創傷 → 滯血瘀 → 調氣治神
痛症과 飲食勞倦	1) 內經 ⁶⁾ - 飲食勞倦傷脾 2) 張從政 ¹⁰⁾ - 因食因寒亦無不皆關於氣 蓋食則氣滯 → 痛停 → 痛停飲食勞債 → 傷脾胃 → 先後天氣虛
痛症과 蟲	1) 內經 ⁶⁾ - (濕熱生蟲) → 心腹痛 2) 張從政 ¹⁰⁾ - 蟲 → 三焦痛 3) 秦伯末 ¹¹⁾ - 蟲積 → 時痛時止

2. 癌性 痛症의 病機

2-1. 內經說을 基準으로한 痛症 病理機轉 略圖¹⁾



2-2. 中醫痛症大成¹¹⁾에 나타난 癌性 痛症의 病理說

1. 氣機失調

각종 病因은 모두 氣機失調를 유발시킴으로 腫塊를 형성할 수 있다. 腫塊가 일단 생기면 그 腫塊는 점차 臟腑經絡을 阻滯시켜 2차적으로 각종 氣機失調를 일으킨다⁸⁾ 《醫宗金鑑》⁹⁾에서는 頭頸部 癌에 “由肝經鬱結, 以致氣血凝滯 經絡而成” 이라 하였으며, 腹部結塊 역시 “七癥

八癢 氣血凝”이라 하여 癌疼痛의 病因病機중 하나가 氣機失調라고 하였다.

2. 瘀血阻滯

瘀血은 인체의 病理的 產物에 속한다. 血行不暢은 한편으로는 腫瘍이 만들어 내는 病理基礎중의 하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腫瘍의 病理는 대부분 血瘀에 속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瘀血阻滯 역시 疼痛의 주요 原因중의 하나가 된다¹⁾.

《內經》⁶⁾에서는 “血泣不得注于大經, 血氣稽留而不得行, 故宿昔而成積聚”라 하여 血行不暢이 癌形成 病機중의 하나라고 하였고, 清代 王清任¹³⁾은 “結塊者, 必有刑之血也. 血受寒即凝結成塊, 血受熱則煎熬成塊”라 하여 腫塊의 病理가 瘀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瘀血은 腫瘍의 形成뿐만 아니라 腫瘍으로 인한 疼痛의 病因病理 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3. 痰癥積結

痰은 津液의 運行이 失常하여 凝結하여 생긴다. 痰癥 역시 암이 생산하는 病理基礎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元代 朱丹溪¹⁴⁾는 “凡人身上中下有塊者多是痰, 痰之爲物, 隨氣機升降, 無處不到” 라고 한것은 痰이 腫塊의 실질적인 病理중의 하나임을 說明하는 것이다.

痰邪는 또한 經絡氣血을 阻滯시켜 臟腑 經絡氣血 失調 및 疼痛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痰이 神明에 阻滯하면 昏蒙頭痛하고, 腸胃에 阻滯하면 嘔吐, 痰涎이 생기며, 肺에 阻滯되면 痰喘

胸痛이 오고, 體表에 머물면 結塊疼痛이 나타난다. 痰邪는 또한 氣滯, 血瘀, 濕邪, 火毒과 相互 結合하여 병이 되는데 痰氣交阻, 痰瘀互結, 痰濕夢閉, 痰火上逆 等 症을 나타낸다¹⁴⁾

4. 濕邪內阻

濕邪는 內外로 나눌수 있는데 外로는 氣候燥濕으로 말미암고, 內로는 脾失健運이 原因이다⁸⁾ 《醫宗金鑑》⁹⁾에서는 “濕熱下注肛門, 內結蘊腫”이라 하여 臟毒(肛腸腫瘤)과 濕邪가 有關함을 말하고 있다. 그의 氣滯血瘀, 癌瘤阻滯 역시 濕邪內阻에 이를 수 있다.

5. 毒火結聚

毒과 火는 同屬으로 毒火는 밖으로 부터 침입하기도 하고 안에서 생길 수도 있다. 毒火가 안에 있으면 臟腑經絡氣血을 損傷시키고 氣血痰濁과 相合하여 癌瘤를 만들고 또한 毒火도 직접 絡을 傷하여 극렬한 疼痛을 야기시킨다⁸⁾. 《諸病源候論》¹⁵⁾에서 “惡核者..... 此風邪挾毒所成”이라고 한것은 體表 혹은 腹腔內 惡性腫核과 外感의 毒邪가 有關함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氣鬱停滯, 積結成癥, 因熱氣相搏, 即 鬱蒸不散, 故脇下滿痛” 이라고 한것은 脇下堅癥疼痛의 病機는 熱氣相搏, 鬱蒸不散임을 說明하는 것이다. 臨床상 癌病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症狀, 예를 들면 高熱, 癩花瘡, 舌菌의 疼痛, 紅爛, 開皮등은 熱毒之傷에 속한다¹⁾.

6. 虛衰失調

機體虛衰失調하면 正氣가 邪氣를 이기지 못하므로 邪氣가 留滯하여 不去하므로 오랜 시

간이 지나면 癌瘤가 된다. 癌瘤가 생긴후 점점 커지게 되면 臟腑를 傷하고, 經絡氣血을 阻滯시켜 각종 虛衰症狀들이 나타나고 體重減少와 疼痛이 날로 增加한다¹⁾

3. 鑒別診斷

癌性痛症을 鑑別診斷하기 위해서는 먼저 正氣와 邪氣의 勢力의 比率을 분명히 辨別하므로 治療의 攻補先後와 主次를 決定해야 한다⁵⁾

癌性痛症의 특징은 正虛邪實이므로 正氣虛는 癌疼痛 發生의 첫번째 要因으로 볼 수 있다. 또한 癌疼痛은 대부분 암의 末期에 나타나는데 邪氣는 未去하면서 正氣는 날로 虛損해짐으로 虛實 勢力의 比率을 우선적으로 辨別하여 先攻後補, 先補後攻, 攻補兼施를 決定해야 한다. 攻補兼施를 해야 할 때는 正邪의 勢力比率에 根據하여 攻補의 程度를 決定해야 한다. 그러므로 癌疼痛의 辨證論治에서는 虛實情況을 분명히 辨別하는 것이 治療의 關鍵이다⁵⁾.

虛證은 正氣不足의 症候 表現인데 生理機能이 減退하고 久病傷損하여 나타나는 症狀으로, 임상적으로는 疼痛綿綿, 少氣懶言, 食少自汗, 乏力消瘦, 精神萎靡不振, 氣短心悸, 目視不正, 手足冰冷, 二便失禁, 舌光無苔, 舌質胖嫩色淡, 脈細弱無力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癌瘤潰後久不愈合, 創面色暗, 膿水清稀 등도 虛證에 속한다.

實證은 病邪亢盛의 表現인데, 臨床의 으로는 痛烈拒按, 大便乾結, 小便不利, 高熱, 煩躁譫語, 口苦咽乾, 苔厚 舌質蒼老堅斂, 脈實有力 등의 症狀이 나타나며, 癌瘤局部焮腫疼痛, 積日不潰 或 堅硬如石 등도 모두 實證의 表現이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往往 正虛와 邪實이 同時

에 存在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結潰疼痛拒按과 消瘦乏力이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虛實 勢力의 比率을 분명히 把握하여 急者治其標 緩者治其本하여야 한다. 虛證에서도 四診을 종합적으로 참고 해야만 臟腑陰陽氣血의 盛衰를 분명히 알 수 있다¹⁾

虛實別 疼痛 病症 略圖

虛 證	疼痛綿綿, 少氣懶言, 食少自汗, 乏力消瘦, 精神萎靡不振, 氣短心悸, 目視不正, 手足冰冷, 二便失禁, 舌光無苔, 脈細弱無力
	癌瘤潰後久不愈合, 創面色暗, 膿水清稀
實 證	痛烈拒按, 大便乾結, 小便不利, 高熱, 煩躁譫語, 口苦咽乾, 苔厚, 舌質蒼老堅斂, 脈實有力
	癌瘤局部紅腫疼痛, 積日不潰, 堅硬如石

癌性痛症의 특징은 비록 共通點이 있더라도 病邪가 틀리므로 각각의 差異點이 있다. 예를 들면 氣滯로 인한 疼痛은 脹痛하는데 情志不暢하면 더 심해지고 脈弦하다. 血瘀로 인한 疼痛은 刺痛인데 아울러 舌質에 瘀血斑點이 나타나고 脈澁하다. 痰濕凝滯로 인한 疼痛은 鈍痛이며 昏蒙 吐痰涎 等症을 수반할 수 있다. 火毒으로 인한 疼痛은 焮熱疼痛으로 高熱 煩渴 혹은 局部紅腫灼熱을 동시에 수반할 수 있다¹⁶⁾

辨證別 痛症樣相 및 特徵症狀

辨 證	痛症樣相	兼 證
氣 滯	脹痛	情志不暢, 脈弦
血 瘀	刺痛	舌質瘀血斑點, 脈澁
痰濕凝滯	鈍痛	昏蒙, 吐痰涎
火 毒	焮熱疼痛	高熱, 煩渴, 局部紅腫灼痛

또한 疼痛은 分部位, 辨虛實, 審寒熱, 明氣血, 定緩急하며 “疼痛因寒十有八九” “通則不痛, 痛則不通”을 強調하는데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癌性痛症의 辨證速見表

部位別分類	頭部前額屬陽明, 後腦內及屬太陽, 兩側屬少陽, 顛頂屬厥陰.
	心肺屬上焦, 脾胃屬中焦, 肝腎屬下焦.
	兩脇屬肝膽, 肩背屬心肺. 乳腺屬肝胃. 口腔屬胃, 舌屬心, 眼屬肝, 腎主骨, 骨生髓, 髓通腦海.
虛實別分類	實 證 痛而脹閉, 拒按, 氣粗, 舌絳, 痛有定處, 結痛刺痛
	虛 證 不脹不閉, 喜按, 脈弦, 脈細, 氣少, 舌淡, 痛無定處, 痠痛竄痛
寒熱別分類	熱 證 惡熱喜冷多熱, 結痛多熱, 脈數多熱
	寒 證 惡寒喜暖多寒, 隱痛多寒, 脈遲多寒
氣血別分類	氣分痛 無形脹痛, 時作時休
	血分痛 痛有定處, 刺痛不休
緩急別分類	急則治標 緩則治本

分部位 : 頭部前額屬陽明, 後腦內及屬太陽, 兩側屬少陽, 顛頂屬厥陰. 心肺屬傷焦, 脾胃屬中焦, 肝腎屬下焦. 兩脇屬肝膽, 肩背屬心肺. 乳腺屬肝胃. 口腔屬胃, 舌屬心, 眼屬肝. 腎主骨, 骨生髓, 髓通腦海.

辨虛實 : 痛而脹閉多實, 不脹不閉多虛, 拒按多實, 喜按多虛, 脈弦, 氣粗多實, 脈細, 氣少多虛, 舌絳多實, 舌淡多虛, 痛有定處多實, 痛無定處多虛. 結痛刺痛多實, 痠痛竄痛多虛.

審寒熱 : 惡寒喜暖多寒, 惡熱喜冷多熱. 隱痛多寒, 結痛多熱. 脈遲多寒, 脈數多熱

明氣血 : 無形脹痛, 時作時休爲氣分痛, 痛有定處, 刺痛不休爲血分痛

定緩急 : 急則治標, 緩則治本

4. 辨證論治

일반적인 痛症의 治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通則不痛, 痛則不通”의 治療원칙하에 葉桂⁸⁾와 陳言⁸⁾은 調和氣血하여 通暢無阻하는 治법을 언급하였고 朱震亨¹⁴⁾은 內經에서 諸痛의 原因이 주로 寒이므로 溫散하는 方法을 택하였다.

또한 諸痛이 實이므로 補할수 없다는 朱震亨¹⁴⁾의 說에 대하여 張介賓⁸⁾은 反駁하여 虛實痛症에 대하여 正治法을 用해야 한다 했고, 程國彭¹⁷⁾은 朱震亨의 溫法이 곧 補法이라 명시하였으며 秦伯末¹¹⁾는 張介賓의 說에 준하여 虛痛에는 補法을 행하므로써 不通을 通暢하게 하여 痛症을 治療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臨床에 있어서 傷寒에 의한 全身骨節痛에는 麻黃湯등으로 發散하며 胃家實에 의해 腹痛이 있으면 攻下 하지만, 太陰腹痛에는 溫補하는 理中湯을 쓰며 腎虛腰痛에는 補腎시키는 治方이 바람직함을 고려할 때 痛症치료는 通則不痛의 治療원칙하에 虛實에 따라 正治함으로서 不通을 通暢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治법으로 사료된다.

痛症의 治療에 관하여 洋方에서는 化學的刺戟, 機械的刺戟, 溫熱刺戟 등의 刺戟要素除去, prostaglandin의 合成을 차단하는 非習慣性 鎮痛劑의 사용 및 神經傳達過程의 차단, 外科手術 등의 方法을 택하고 있다¹¹⁾.

洋方의 治법중 刺戟要素除去 및 prostaglandin의 合成을 차단하여 鎮痛하는 方法은 韓醫學의 不通의 要因을 除去함으로서 通하게 하는 治療원칙과 相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神經傳達過程의 차단과 外科手術은 疼痛을 知覺하는 神經의 活動을 억제하는 效果로 이해할 수 있지

만, 韓方에서는 局部的 神經活動까지도 全一生命現象을 발현하는 필수적 요소로 생각되는 점이 相異한 것으로 思料된다.

4-1. 腫瘤臨症備要¹⁶⁾에서의 辨證論治 癌性疼痛 辨證論治 速見表

辨證	疼痛特徵	兼症	舌象	脈象	治法	選方	常用藥
毒邪結型	結痛	持續疼痛, 腫塊堅硬	舌青紫光暗	弦實	化毒散結	五味消毒飲	野菊花, 蒲公英, 子河車, 莖朮, 白屈菜
氣滯不通型	脹痛	時緩時急, 氣短肢重	舌暗	弦	行氣導滯	理氣丸	柴胡, 鬱金, 川芎, 當歸, 白芍藥, 穿山甲
血瘀經絡型	刺痛	洞有定處, 壓時加重	舌紫	澀	活血通經	桃紅四物湯	桃仁, 紅花, 川芎, 五靈脂, 當歸, 柴胡, 莖朮
風寒客邪型	竄痛	痛無定處, 得溫減輕	苔白	緊	疎風散寒	獨活湯	羌活, 姜黃, 當歸
脾虛寒凝型	隱痛	綿綿作痛, 遇寒驟痛	白膩厚	遲	溫中健脾	大建中湯	川椒, 乾薑, 人參, 白朮, 艾葉

4-2. 中醫痛症大成¹¹⁾에 나타난 辨證論治 邪氣盛實과 正氣虛衰로 나누어 辨證論治하였다.

1. 邪氣盛實

1) 肝鬱氣滯

主證 : 局部脹痛 體表則可觸及結塊, 皮色不變, 兩脇脹痛, 情志不暢則疼痛加重, 抑鬱狀態者 是 氣鬱兼火하여 急躁易怒 口苦咽乾目眩, 舌質淡紅苔薄或白或黃, 脈弦

治法 : 疏肝理氣, 散結止痛,

方藥 : 逍遙散加減 《太平惠民和劑局方》¹⁸⁾

白芍 當歸 茯苓 各15g, 柴胡 白朮 鬱金 玄胡索 陳皮 各 10g, 白花蛇舌草 30g

本證은 대부분 疾病의 初期에 속하는데 消化系統과 婦人科 癌瘤疼痛에서 볼수있다. 癌疼痛

에는 일반적으로 結塊에 鍼灸 혹은 按摩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만약 鍼灸療法을 활용하고자 할때는 기타 疼痛의 部位로 順經取血을 한 후 按摩 혹은 鍼灸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2) 瘀血內結

主證 : 疼痛不離, 如錐如刺, 固定不離, 或結塊觸診, 堅硬如石固定, 舌質暗紅或紫, 脈澀, 瘀斑, 肌膚甲錯, 皮膚粘膜의 出血點

治法 : 活血祛瘀, 散結止痛, 方藥 : 膈下逐瘀湯加減 《醫林改錯》¹³⁾

當歸尾 赤芍藥 玄胡索 丹參 各15g, 五靈脂 桃仁 紅花 烏藥 各10g, 白屈菜 30g

瘀血內結型의 癌痛은 일반적으로 肝鬱氣滯로 인하여 발생하며 毒邪와 共存하므로 臨床상 氣滯와 毒火가 합하여 氣滯血瘀, 瘀毒內阻로 나타난다.

3) 毒火結聚

主證 : 疼痛不離, 疼痛如灼, 體表部에서는 局部紅爛無皮, 煩熱口渴, 排出物腐臭, 口苦口臭, 小使黃赤, 大便燥結, 舌質紅苔黃厚, 脈弦滑或數

治法 : 解毒散結, 清熱瀉火

方藥 : 清涼甘露飲加減 《醫宗金鑑》⁹⁾

生地黃 15g, 麥門冬 知母 黃芩 石斛 枳殼炒 枇杷葉 銀柴胡 淡竹葉 各 10g

本證은 頭頸部癌疼痛에 多發한다.

4) 痰凝阻滯

主證 : 鈍痛, 痛不離其所, 苔膩脈滑

阻于神明則眩暈耳鳴, 視物不清, 肢體麻木, 舌強不語, 喉中痰鳴, 身重倦怠, 阻于胸中, 胸膈痞悶,

食入不暢, 咳吐痰涎, 痰邪阻絡, 癰癥痰核, 結硬如石

治法 : 化痰軟堅, 散結止痛

方藥 : 滌痰湯加減 《證脈方藥合編》¹⁹⁾

威靈仙 猪苓 各30g, 半夏15g, 陳皮 茯苓 牛膽南星 白朮 蒼朮 竹如 各10g

2. 正氣虛衰

癌瘤邪氣가 오래도록 머물면서 疼痛이 사라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衰弱해지면 正邪를 함께 살피 攻補兼施를 해야 하는데 先攻後補 혹은 先補後攻 한다. 攻瀉에 대해서는 이미 전술하였고 虛衰之證은 臟腑氣血에 根據하여 辨證施治한다²⁰⁾.

1) 脾肺氣虛

主證 : 癌瘤疼痛, 少氣乏力, 聲弱懶言, 食少便溏, 精神不振, 舌色不澤, 脈弱無力

治法 : 益肺健脾, 補氣祛邪

方藥 : 四君子湯 《太平惠民和劑局方》¹⁸⁾

合生脈散 《證脈方藥合編》¹⁹⁾ 人蔘 白朮 茯苓 炙甘草 麥門冬 五味子 各 10g

이 證은 대부분 肝癌과 胃, 腸癌에서 볼수 있으며 기타 癌瘤痛도 後期에 이르면 나타날수 있다. 正氣가 비록 虛하더라도 邪氣가 아직 尙存함으로 邪氣盛實을 파악해 邪氣를 辨別하여 攻補兼治한다.

2) 心脾兩虛

主證 : 癌瘤疼痛, 失眠健忘, 驚悸怔忡, 食少體倦, 面色萎黃, 舌質淡苔薄白, 脈細弱

治法 : 健脾養心, 益氣補血

方藥 : 歸脾湯加減 《證脈方藥合編》¹⁹⁾

黃芪30g, 白朮 茯苓 龍眼肉 酸棗仁 人蔘 當歸 遠志各10g, 木香 炙甘草各5g

이것은 脾虛로 말미암아 血이 虧損된 것이므로 補氣生血하여 養心해야 한다. 역시 邪氣와 結合한 性質이므로 邪氣盛實을 참고하여 攻補兼施해야 한다.

3) 氣血雙虛

主證 : 癌瘤疼痛, 食少懶言, 四肢倦怠, 面色蒼白或萎黃, 心悸怔忡, 舌質淡苔薄白, 脈細弱或虛大無力

治法 : 平補氣血

方藥 : 八珍湯加減 《醫宗金鑑》⁹⁾

人蔘 白朮 茯苓 當歸 白芍 熟地 大棗 各10g, 川芎 炙甘草 生薑 各5g ,

이 證은 癌瘤通 末期에 볼수 있는데 邪氣盛實이 結合되어 나타나므로 正邪兼治한다.

4) 肝腎陰虛

主證 : 癌瘤疼痛, 頭暈耳鳴, 腰膝酸軟, 盜汗骨蒸, 舌紅少苔, 脈沈細數

治法 : 滋補肝腎, 養陰補精

方藥 : 六味地黃丸 合一貫煎

熟地 25g, 山茱萸 山藥 枸杞子 各15g, 澤瀉 茯苓 牡丹皮 當歸 沙蔘 麥門冬 各10g

이 證도 역시 標本과 虛實을 잘 살피서 함께 考慮하여 治療하여야 한다.

5) 脾腎陽虛

主證 : 癌疼痛, 氣怯神疲, 腹痛腰痛, 肢冷腹寒,

五更泄瀉, 不思飲食

濕阻于內者 氣短喘促, 咳吐痰涎, 腹大如鼓, 小便短少, 舌質苔白, 脈沈細

治法 : 健脾暖腎, 填精溫陽

方藥 : 腎氣丸 合理中丸加減 《傷寒論》⁷⁾

熟地 25g, 山藥 山茱萸 15g, 澤瀉 茯苓 牡丹皮 乾薑 人蔘 白朮 炙甘草 各10g, 桂枝 附子 5g, 濕阻于內者 加味 豬苓 15g, 澤瀉 茯苓 各 30g

5. 諸家 臨床應用 處方

1. 外敷癌痛散²⁵⁾

藥物組成 : 山查, 乳香, 沒藥, 大黃, 姜黃, 梔子, 白芷, 黃芩 各 20g, 小茴香, 公丁香, 赤芍藥, 木香, 黃柏 各 15g, 蓖麻仁 20粒. 上述된 藥을 가루내어 鷄卵흰자에 적당량 혼합하여 잘 저어서 풀같이 만들어 사용한다.

治療方法 : 肝癌患者의 期門穴에 붙이고 肺癌患者의 乳根穴에 붙인다. 藥을 꺼즈나 파라핀지에 개서 붙인후 집착 테이프로 固定시킨다. 疼痛이 極烈한 者는 6時間 마다 교환해 주고 疼痛이 경미한자는 12시간 마다 교환한다. 疼痛이 緩和 或은 消失될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注 : 期門穴은 乳中腺의 第6, 7肋間에 있고 乳根穴은 乳頭 直下 第 5, 6肋間에 있다).

適應病證 : 肝癌, 肺癌疼痛

臨床效果 : 外敷癌痛散을 사용하여 20例의 肝癌, 肺癌의 癌性 疼痛을 치료 한 결과 일반적으로 3次 사용하면 疼痛이 어느정도 輕減되고 3 日후에는 止痛된다.

考 案 : 이 方은 近代의 名醫 盛國榮 教授

가 수십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동시에 病情에 根據해서 內服藥物을 選用할 수 있다. 方中の 黃芩, 黃柏, 大黃, 梔子는 清熱解毒, 消炎止痛하고; 山查, 小茴香, 公丁香, 木香은 芳香走竄, 理氣散結止痛하며; 乳香, 沒藥, 赤芍藥, 姜黃, 白芷는 活血祛瘀, 消腫止痛하고; 蓖麻仁은 拔毒消腫止痛의 效를 가지고 있으며 大량의 脂肪酸을 함유하고 있어 賦刑劑의 常用之品이 되고 外科의 要約이 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方은 清熱解毒, 消腫止痛에 더욱 效能이 있다. 한편 有效한 經穴을 선택하여 止痛의 效과를 높일 수 있다.

2. 三蚤玄黃丸(膏)²⁶⁾

藥物組成 : 三七根, 蚤休, 玄胡索, 黃藥子 各 10g, 川烏 6g, 龍腦香 8g, 蘆根 20g, 紫皮, 大蒜 100g, 麝香 적당량.

治療方法 : 三七根, 蚤休, 玄胡索, 蘆根, 黃藥子, 川烏, 龍腦香, 麝香을 함께 取하여 가루내어 100目체로 친다음, 大蒜汁을 이용하여 膏劑를 만든다. 丸劑로 만들때는 麝香을 코발트에 쬐어 殺菌한 후에 사용한다. 膏劑 혹은 丸劑의 單位量은 3g으로 한다. 붙이는 藥은 膏劑를 사용하는데 隔日로 2貼을 痛點에 붙이거나 經絡의 壓痛點에 붙이고 丸劑는 매일 2丸씩 복용한다.

適應病證 : 末期癌症 疼痛

臨床效果 : 本 方法으로 치료관찰한 末期 癌患者 58例는 胃腸癌 28例, 肝癌 12例, 胰腸癌 8例, 肺癌 6例, 骨癌 4例였다. 藥을 사용한지 30分 지나서 鎮痛된 경우는 41例, 50分 지나서 顯效가 있었던 것이 17例로 나타났고, 진통 效과

가 유지된 시간은 짧게는 2시간 10분이었고, 길게는 21시간이었다. 치료효과에 만족한자는 54예, 만족하지 않은 자는 4예 였다. 58예중에 內服藥을 먹은 경우는 23예로 진통시간이 길게는 21시간이었고, 外敷藥을 사용한 경우는 35예로 진통시간이 길게는 17시간이었다. 이 藥을 사용한 후 生存延長이 3- 6개월 이상인 자는 30예였고 1년 이상은 15예였으며 2년 이상은 7예였고 效果가 없었던 경우는 6예였다. 本藥은 消化器 癌 末期의 疼痛에 대한 치료효과가 肺癌과 骨癌보다 현저하게 나타났고, 其他 部位의 癌症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藥을 사용한 후 患者에게서 毒性 및 특별한 副作用은 없었다.

考 案 : 方中の 三七根과 玄胡索은 活血化瘀 消腫止痛하고; 麝香, 蚤休, 大蒜, 黃藥子是 抗癌散結 消痛하므로 主藥으로 삼고; 川烏는 祛風散寒 通經止痛하며; 龍腦香 및 麝香은 芳香走竄 散結止痛 함으로 佐使藥으로 활용한다. 蘆根은 清熱生津 健胃止嘔하는 효능이 있는데 消痛作用뿐만 아니라 川烏 및 黃藥子の 毒을 완화시킴으로 祛邪와 동시에 正氣가 損傷되지 않도록 한다.

3. 金延芍藥湯²⁷⁾

藥物組成 : 金櫻子 15-20g, 延胡索 20-40g, 白芍藥 20-60g.

治療方法 : 上述된 藥物의 용량은 소량에서 부터 시작해야하며 病情을 봐서 결정한다. 물에 달여 풀같이 농축시켜 자주 복용한다.

臨床效果 : 本方으로 100例의 肺癌, 肝癌, 食道癌, 胃癌, 子宮癌 등에서 나타나는 臟腑 肢體

疼痛患者를 치료한 결과 모두 좋은 효과를 얻었다. 또한 副作用도 발견되지 않았다.

考 案 : 癌症의 疼痛은 氣血鬱滯와 관련된 것이 많다. 그럼으로 金櫻子, 延胡索, 白芍藥으로 行氣活血祛瘀하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蟾蜍止痛方²⁸⁾

藥物組成 : 살아 있는 蟾蜍 약간.

治療方法 : 살아 있는 큰 蟾蜍 한마리를 잡아 껍질을 벗긴 후 깨끗한 물로 오물을 씻어낸다. 그다음 患者가 느끼는 가장 아픈곳의 피부를 온수나 알코올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낸 후 蟾蜍皮를 이곳에 붙이고 거즈로 덮고 고정시킨다. 蟾蜍皮가 마르면 매일 신선한 蟾蜍로 3-4차례 或은 2-3차례 교환해준다. 시간에 제한됨이 없이, 疼痛이 발생하면 즉시 붙이고 마르면 다시 교환한다.

適應病證 : 肝癌疼痛

臨床效果 : 本方으로 20例의 肝癌 疼痛을 치료한 결과 顯效가 18例였고 有效한 것이 2例였다. 1例에 있어서도 副作用은 나타나지 않았다.

考 案 : 蟾蜍는 類蛤蟆이라고도 하는데 四肢 및 背部가 緻密하고 毒腺이 分布하며 그 皮膚의 주요성분은 蟾酥로 消腫止痛하는 효능이 있다. 本方은 肝癌疼痛患者에 대하여 양호한 진통효과를 보였는데, 어떤 환자에게는 皮膚瘙癢이 나타났지만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충분한 진통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新鮮한 蟾蜍皮로 자주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5. 肝癌止痛方²⁹⁾

藥物組成 : 龍腦香 15g, 白酒 적당량.

治療方法 : 龍腦香을 白酒中에 넣고 溶解시켜 使用한다. 필요시에 면봉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 藥을 묻혀 疼痛部位에 발라주면 약 10-15分 지나서 效果가 나타난다.

適應病證 : 肝癌 後期の 肝部位 疼痛.

臨床效果 : 本方은 원래 民間에서 전해내려오는 것으로 현재는 임상에서 肝癌 後期の 肝部位 疼痛에 양호한 效果가 있다.

考 案 : 韓醫學에서 疼痛은 氣血鬱滯하여 不通함으로 發生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龍腦香과 白酒는 芳香性을 갖는 藥性을 갖고 있으므로, 開鬱散結하여 진통의 效果를 일으킬 수 있다.

6. 如意金黃散³⁰⁾

藥物組成 : 大黃, 黃栢, 姜黃, 皮硝, 芙蓉葉 各 50g, 龍腦香, 生南星, 乳香, 沒藥 各20g, 雄黃 30g, 天花粉 100g.

治療方法 : 가루로 만들어 놓는다. 치료시에는 가루에 엿을 넣어 된풀같이 되게 한후 기름 먹인 종이위에 펼쳐 놓고 두께는 3-5 mm정도, 넓이는 대충 腫塊크기만큼 되게하여 肝部位 腫塊 윗부분이나 疼痛處에 붙인다. 隔日에 한차례씩 교환하는데 두차례 시행하는 것을 1次 치료기간으로 한다. 藥을 붙이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鎮痛 藥의 使用을 中止한다. 藥을 붙인 후 皮膚에 丘疹 혹은 瘡疹이 나타나면 붙이는 것을 잠시 中止해야 하며, 皮膚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다시 붙인다.

適應病證 : 原發性肝癌疼痛.

臨床效果 : 以上の 方法으로 31例의 原發性肝癌疼痛患者를 치료한 결과 重한 疼痛의 16例

에서는 顯效 14例, 有效가 2例로 나타났고 中等度의 疼痛 12例에서는 顯效 8例, 有效가 4例로 나타났으며, 輕度의 疼痛 3例에서는 顯效는 2例, 有效는 1例로 나타나, 종합해 볼때 顯效는 24例로 77.4%를 차지하였고 有效는 7例로 22.6%를 차지하였으며 無效의 病例는 없었다. 藥을 붙인 후 局部에 皮膚反應이 있었던 患者는 5例로 주로 丘疹, 紅斑이 나타나는데 瘡疹이 發現된 자는 4-5일 지나면 저절로 소실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藥을 붙이면 되며, 全身過敏反應을 보인자는 없었다. 疼痛정도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輕度는 局部隱隱痛하고 上腹部脹滿하여 鎮痛藥物의 使用없이도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동통을 말하고, 重度는 局部劇痛하며 鎮痛劑를 使用하면 잠시 완화되는 정도의 동통이며, 中度는 輕,重度 兩者 사이를 말한다. 治療效果의 判斷 기준은 한차례의 치료과정으로 동통이 完全 소실되면 顯效로 하였고, 두번째 治療過程에서 동통이 完全 소실되지는 않았지만 輕減이 뚜렷한 것을 有效로 하였으며, 두번째 治療過程 이상에서도 痛症의 輕減이 보이지 않으면 無效로 하였다.

考 案 : 肝癌疼痛은 肝氣鬱結, 氣鬱化火로 인해서 생기므로 陽證, 熱證에 屬한다. 方中에 大黃, 黃栢, 芙蓉葉, 天花粉은 清熱瀉火하고, 姜黃, 沒藥, 乳香은 活血止痛하며, 生南星, 皮硝는 軟堅散結하고, 龍腦香은 散鬱火하며 鎮痛하고, 雄黃은 解毒하므로 전체적으로는 清熱瀉火, 解毒消腫, 活血止痛, 軟堅散結의 效能이 있다. 몇 차례 붙여서 동통이 소실되면 잠시 된다. 腫증이 다시 오면 다시 붙여도 역시 效果가 있다.

7. 鼠婦止痛方³¹⁾

藥物組成 : 말린 쥐며느리(절족동물) 60g.

治療方法 : 매일 1劑를 물에 두차례 다려 240ml를 取하여 매일 네차례로 나누어 60ml씩 먹는다. 복약중에는 신음식, 매운 음식을 피한다.

適應病證 : 肝癌의 極烈한 疼痛

臨床效果 : 本方을 응용하여 6例의 극렬한 肝癌 疼痛患者를 치료한 결과 鎮痛藥을 사용해도 진통되지 않는 상태의 환자에게 本方을 복용시켜 모두 단기간 내에 기본적인 혹은 完全 鎮痛의 目的에 到達하였고 副作用은 없었다. 그 진통작용은 2시간 이상 유지되었다.

考 案 : 國內에서는 이미 쥐며느리 制劑(散劑, 湯劑)로 手術後의 疼痛이나 腹痛을 치료한다는 病例 보고가 있다. 이것에 根據해서 肝癌의 劇痛에 應用해 본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동시에 동물실험에서도 本方의 진통작용이 杜冷丁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8. 加味推氣散³²⁾

藥物組成 : 姜黃, 枳殼, 桂心, 當歸, 紅藤, 厚朴, 蜈蚣, 鬱金, 柴胡, 丹蔘 各 30g, 制南星, 半夏, 大黃 各 18g, 白芍藥 60g, 炙甘草 12g을 가루로 만든다.

治療方法 : 매일 세번씩 한번에 12g을 먹는다. 痛症이 甚한 者는 16g으로 늘려 먹는다. 아울러 丹蔘, 生薑 各 6g, 白朮, 茯苓, 桃仁 各 9g, 大棗 9個를 물에 달여 함께 복용한다.

適應病證 : 肝癌 末期의 疼痛.

臨床效果 : 本方으로 肝癌 末期의 疼痛患者

44例를 치료하여 양호한 효과를 얻었다. 2일후 疼痛이 소실된 자는 9例, 3日후 疼痛이 소실된 자는 14例, 4일후 疼痛이 소실된 자는 11例, 6일후 疼痛이 소실된 자는 10例로 나타났고, 食欲도 어느정도 增加하였다.

考 案 : 肝癌疼痛은 肝이 疏泄機能을 喪失하여 氣滯血瘀되어 “不通則痛” 하게 된 까닭이다. 方中의 姜黃, 枳殼, 桂心, 甘草는 理氣消脹, 活血化瘀하고; 半夏, 南星, 蜈蚣, 厚朴, 柴胡, 鬱金은 理氣開塞, 通絡止痛하며; 白芍藥, 甘草는 柔肝止痛하고; 丹蔘, 當歸, 紅藤은 清熱活血하며; 大黃은 通腑泄濁한다. 本方은 辛味의 發散중에도 酸味의 收斂함이 있고, 甘味중에도 苦味의 下함이 있고, 香燥중에도 濡潤함이 있으며 溫熱중에도 寒涼함이 있어 서로 합리적으로 배합되어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鱉莖外敷劑³³⁾

藥物組成 : 살아 있는 자라 머리 2具, 新鮮한 莧菜 150(마른 것은 90)g, 水紅花籽 90g.

治療方法 : 우선 자라 머리를 덩어리로 분쇄한 후에 깨끗한 석판위에 놓고 작은 망치를 利用하여 두들겨 진흙처럼 되면 다시 炭莧菜와 水紅花籽를 넣고 역시 진흙처럼 될때까지 찧는다. 腫塊나 疼痛部位의 크기에 따라 꺼즈를 잘라 藥을 그위에 두께 1.5mm로 바르고 윗면에 다시 술한잔과 따뜻한 식초를 뿌린후 12시간 마다 한번씩 교환해준다. 따뜻할때 患處에 붙이고 반창고로 고정시킨다.

適應病證 : 肝癌極痛.

臨床效果 : 여러명의 極烈한 痛症이 있는 肝癌患者를 치료한 결과 鎮痛效果가 양호하였다.

일반적으로 2일간 계속 사용하면 患處의 疼痛이 현저하게 호전된다. 원래 사용하던 杜冷丁은 어떤때는 저녁 때만 한차례 筋肉注射하면 되었다. 6-7일 정도 붙여서 患處의 針刺戟 같은 疼痛이 소실되고 局部的 腫塊가 점차 軟해지면, 일반적으로 杜冷丁의 사용을 中斷해도 된다.

考 案 : 현재 肝癌으로 인한 極烈한 疼痛에 쓰이는 일반 진통제는 그리 좋지 못하다. 本方의 자라머리, 炭莧菜, 水紅花籽은 淸熱解毒, 消瘀破積, 軟堅散結의 效果가 있다. 임상을 통하여 볼때 본 방은 肝癌의 極烈한 痛症患者에게 있어 비교적 鎮痛作用이 좋은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10. 外敷香蚣散³⁴⁾

藥物組成 : 蜈蚣 10마리, 乳香, 沒藥, 全蝎, 硼砂 30g, 陳橘皮, 蚤休, 生米殼, 紫花地丁 各 45g, 銀朱 9g, 麝香 1.5g.

治療方法 : 上藥을 가루로 만들어 混合해 놓는다. 필요시 메틸가루로 묽은 풀을 만든 후, 약가루를 섞어 동통부위의 크기만큼씩 만든다. 肝部位의 對側 皮膚에 붙이는데 하루에 한번 혹은 이틀에 한번 바뀐다.

適應病證 : 肝癌疼痛.

臨床效果 : 臨床에서 本方을 이용하여 肝癌의 疼痛患者를 여러명 치료한 결과 일정한 진통효과를 얻었다.

考 案 : 本方은 活血祛瘀, 通絡散結, 淸熱解毒, 止痛 목적으로 蜈蚣, 全蝎, 生米殼 등의 강력한 通絡之品을 重用하였고, 麝香의 辛味로 香走竄함으로 비교적 강한 滲透力을 가져 진통의 效果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보인다.

11. 肝外 1號方³⁵⁾

藥物組成 : 雄黃, 白礬, 青黛, 皮硝, 乳香, 沒藥 各 60g, 血竭 30g, 龍腦香 10g을 가루로 하여 1포에 30-60g씩 나누어 사용한다.

治療方法 : 식초와 돼지 膽汁을 반씩하여 한포의 藥을 개어서 患處에 붙이는데 藥이 마르면 다시 식초와 膽汁으로 濕潤하게 해준다. 매일 한번, 8時間 정도 붙여둔다. 어떤 患者에게서는 夜間에 붙이면 效果가 비교적 좋다.

適應病證 : 末期 肝癌, 脾腸癌의 極烈한 疼痛者.

臨床效果 : 臨床에서 本方을 사용하여 여러例의 原發性肝癌, 脾腸癌患者를 치료하여 양호한 진통효과를 얻었다.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鎮痛劑의 用量과 用藥 回數를 減少시킬 수 있었고 더 나아가 鎮痛藥을 먹지 않게 되었다.

考 案 : 末期 肝癌, 脾腸癌患者의 疼痛은 비교적 極烈한데 일반적으로 癌腫이 腹膜 혹은 神經을 직접 침범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鎮痛藥으로는 效果가 없고 痲藥性 鎮痛劑만이 일시적으로 진통되나 副作用이 수반되게 된다. 本方은 涼血活血함으로 化瘀鎮痛하게 된다. 임상에서 활용해 보면 일정한 진통효과가 있는데 어떤 患者에게서는 다른 鎮痛藥을 대신하기도 한다.

12. 腎癌外敷方³⁶⁾

藥物組成 : 龍腦香片, 藤黃 各 3g, 麝香 0.3g, 生南星 20g.

治療方法 : 위 藥을 가루로 만들어 술과 식초를 각각 반반씩 넣고 풀과 같이 만들어 腰部 癆塊 혹은 疼痛이 있는 곳에 바른다. 마르면

藥을 다시 바른다. 皮膚에 刺戟 증상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용해도 된다.

適應病證 : 腎癌局部疼痛.

臨床效果 : 일반적으로 藥을 붙이면 동통은 완화되거나 소실된다. 주로 末期 腎癌의 局部疼痛에 사용한다.

考 案 : 本方은 通絡活血, 祛瘀化痰, 軟堅散結하고 鎮痛의 效果가 있으며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癌性疼痛을 그치게 하는 有效한 方法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13. 余桂青의 癌性 痛症 治療¹¹⁾

辨證旋治 : 1) 毒邪蘊結 → 解毒散結

2) 氣滯血瘀 → 活血化瘀

3) 氣血虛虧 → 補益氣血

常用藥物 : 乳香, 沒藥, 木香, 白芷, 元柴胡, 鬱金, 川棟子, 罌粟角, 白屈菜, 徐長卿, 雄黃, 細辛, 七葉蓮.

通用方 : 鎮癌痛

人工牛黃, 麝香, 乳香, 沒藥, 漢三七, 玄胡索, 鬱金, 冰片, 紫河車, 山慈姑 等 細末口服

14. 單驗方¹¹⁾

1) 鼻上方 : 鼻咽癌의 頭痛耳鳴, 咽乾鼻塞, 面部麻木, 復視, 口眼喎斜, 舌苔薄黃, 脈弦滑에 쓴다.

處 方 : 葵樹子 480g, 桑寄生 莪朮 半枝蓮 15g, 山慈姑 釣鈎藤 走馬胎 各 12g, 蜂房 9g, 蜈蚣3條

2) 陀僧膏 : 體表癌瘤疼痛에 塗布한다.

處 方 : 密陀僧 60g, 棟油 100g, 香油 50g, 大

黃 25g, 赤芍藥 當歸赤石脂 百草霜 各 6g, 銀黝 3g, 乳香 沒藥 孩兒茶 血竭 各 1.5g, 苦參 12g

3) 皮膚淨 : 皮膚癌

鹹發白面 172g, 大棗 70g, 紅砒 50g, 血余 5g, 指甲 2g

4) 漱口水方 : 舌癌

處方 ; 苦參 五倍子 山豆根 龍葵 紫河車 白屈菜 仙鶴草 各 30g , 冰片 小量

5) 食管癌疼痛方 : 罌粟角 3g , 白屈菜 30g

6) 胃癌疼痛方 : 玄胡索 15g, 白芍 12g, 香附子 木鱉子 10g , 木香 6g , 白屈菜 30g

7) 泰癌 : 川烏에서 採取하여 胃癌 肝癌에 藥鍼注射로 쓴다.

6. 耳針을 利用한 癌性 痛症의 治療

1) 《實用耳穴診療法》²²⁾

主穴 : 腫瘤特異區, 皮質下, 神門, 相應穴位

輔穴 : 腎上腺, 交感, 肝, 心

加減 : 體質虛弱, 食慾不振이면 胃, 脾, 失眠이면 神門, 安眠穴

治法 : 耳穴壓豆法, 耳鍼法, 杜冷丁 耳穴注射法

2) 《耳鍼》²³⁾

主 穴 : 神門, 皮質下, 交感, 相應部位(點刺)

補助穴 ; 內分泌

III. 結 論

癌性 痛症의 病因, 病理, 治療에 대하여 數種의 韓醫學 書籍과 최근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로 考察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癌性 痛症의 病因은 內經의 寒說, 張從政의 氣說 및 朱震亨의 痰火說로 要約할 수 있다.
2. 癌性 痛症의 病理는 經絡臟腑中の 氣血運行 障導로 因한 氣機失調, 瘀血阻滯, 痰凝積結, 濕邪內阻, 毒火結聚, 虛衰失調로 나눌 수 있다.
3. 癌性 痛症의 治法은 通則不痛 不通則痛의 治療原則下에 虛實에 따라 益氣補血, 活血祛瘀 함으로서 不通을 通暢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4. 癌性 痛症에 많이 쓰인 內服 藥物로는 行氣活血, 消腫止痛하는 乳香, 沒藥, 姜黃, 南星, 白屈菜등 이었다.
5. 癌性 痛症의 처방은 實證에는 逍遙散加減, 膈下逐瘀湯加減, 清涼甘露飲加減, 滌痰湯加減 등이었으며, 虛證에는 歸脾湯加減, 八珍湯加減, 六味地黃丸, 腎氣丸合理中丸加減 등이었다.
6. 痛症이 심한 경우에는 外搗藥을 사용하였으며, 藥물로는 龍腦, 麝香, 蟾蜍, 鼠婦 및 乳香, 沒藥 등이 활용되었다.
7. 耳鍼은 神門, 皮質下, 內分泌 및 反應穴位를 활용하였다.

參考文獻

1. 金聖勳 外 : 東醫病理學, 서울, 한림원, PP. 357 - 378, 1994.
2. 柯新橋 外 : 癌症效方 240首, 中國, 北京醫科大學出版, PP.225 - 233, 1993.
3. 李善敬 : 最新病理學概論, 서울, 靑丘文化社, P.79, 1992.
4. 서울대학교의과대학 : 腫瘍學, 서울대학교출판부, PP.1 - 3, 1989.
5. 郁仁存 : 中醫腫瘤學, 中國, 木鐸出版社, PP.24 - 29, 62 - 63, 1983.
6. 程士德 外 : 素問註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上) P.75, PP.549-561, P.598, 613,(下) 232, 1987.
7. 南京中醫學院 :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90, 1980.
8. 王新華 : 中醫歷代醫論選, 中國,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612, 615, 617, 651, 1983.
9. 吳謙 :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624, 1744, 1759, 1766, 1982.
10. 北京中醫學院 : 中醫各家學說,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89-135, 1979.
11. 蘇誠煉 外 : 中醫痛症大成, 北京, 福建科學技術出版社, PP.229-242, 352-353, 445-446, 1993.
12. 鄭傳達 : 中醫治療腫瘤經驗,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12-14, 1994.
13. 王清任 : 醫林改錯,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P.37, 1984.
14. 李聰甫 外 :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之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36, 1983.
15. 巢元方 : 諸病源候論橋釋, 人民衛生出版社, P.857, 1982.
16. 李岩 : 腫瘤臨證備要,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PP.70 - 71, 1980.
17. 程國彭 : 醫學心悟, 中國, 友聯出版社, P.40, 1961.

18. 陳師文 : 太平惠民和劑局方, 臺北, 旋風出版社, P.204, 1975.
19. 黃度淵 : 證脈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P.121, 227, 1977.
20. 洪元植 : 現代中共의 癌治療, 서울, 英文社, P81-84, 1984.
21. 李중달 : 그림으로 說明한 病理學, 서울, 高麗醫學, P.171, 1990.
22. 楊傳札 : 實用耳穴診療法, 北京, 對外貿易教育出版社, P.140, 1989.
23. 金容基 : 耳鍼, 서울, 明文堂, P. 61, 1992.
24. 朴英培 外 : 韓方診斷學[Ⅱ]辨證, 成輔社, P.185 - 186, 1986.
25. 柯聯才 : 盛國榮應用 癌痛散 外敷穴位 療肝癌肺癌 疼痛經驗, 浙江中醫雜誌(1), P.34, 1991.
26. 孟照華 外: 中藥止痛抗癌丸(膏), 中國中藥雜誌 (1), P. 57, 1991.
27. 朱彤等 : 治癌痛驗方, 山東中醫雜誌 (1), P. 49, 1989.
28. 王群芳 外: 蟾蜍皮外用 治療肝癌疼痛 20例, 中國鄉村醫生雜誌 (4), P 8, 1991.
29. 馬安寧 : 肝癌後期止痛方, 山東中醫雜誌 (2), P.82, 1982.
30. 方松韻 : 如意金黃散 外敷治療 原發性肝癌疼痛 31例 報道, 腫瘤 (6), P.260, 1985.
31. 姚善業 外: 大劑量單味鼠婦止肝癌極痛六例, 雲南中醫雜誌, P. 33, 1986.
32. 胡安黎 : 推氣散加味 治療 肝癌晚期 疼痛 44例, 浙江中醫 雜誌 (3), P.104, 1987.
33. 王必發 : 鱉莖敷劑 治肝癌極痛, 江蘇中醫雜誌 (4), P.4, 1986.
34. 賈 坤 : 癌瘤中藥防治研究第二版, 陝西科學技術出版社, 120項, 1984.
35. 段鳳舞 : 凡種腫瘤 外治法 簡介及 臨床應用 體會, 黑龍江中醫藥 (4), P.19, 1984.
36. 管濟生 : 晚期腎癌 局部疼痛 外敷方, 江蘇中醫 雜誌 (10), P. 32, 1986.